

## 한국고등학생방일단(제 3 단) 초빙사업 기록

###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 개요】 한일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한 방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한국 전국에서 선발된 한국 고등학생 등을 초빙하여 강의 청강, 학교 방문, 테마 ‘첨단기술 전공 고교생 교류 (로봇공학 학습자편)’에 따른 각종 시찰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아직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일본의 새로운 매력을 발신함으로써,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한국 고등학생 50 명 (인솔자 포함)

【방문지】 도쿄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현

#### 【일정】

■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학습) :

8 월 29 일(목)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 참가자에 의한 대외발신

■ 초빙프로그램 :

9 월 22 일(일)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착시 오리엔테이션

【강의】 ‘최근 일한관계에 대하여’

9 월 23 일(월) 【시찰】 일본과학미래관, 소나에어리어

【시찰】 이수현 씨 추도 · 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9 월 24 일(화) 가고시마현으로 이동

【학교방문 · 교류】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9 월 25 일(수) 【시찰】 심수관 가마

【강의】 제 15 대 심수관 ‘도방잡화’

【자치체방문】 가고시마현청

【강의】 가고시마현청 ‘가고시마현과 한국의 관계, 가고시마현의 매력 등’

9 월 26 일(목) 【시찰】 가고시마시립과학관, 가고시마 유신 후루사토관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9 월 27 일(금) 홈스테이 해산식, 후쿠오카현으로 이동, 성과보고회(방일 성과·귀국 후의 활동계획 발표)

9 월 28 일(토) 후쿠오카국제공항에서 출국

## 2. 기록사진

<p>2024년 9월 22일 【강의】 ‘최근 일한관계에 대하여’</p>	<p>2024년 9월 23일 【시찰】 국립과학미래관</p>
<p>2024년 9월 23일 【시찰】 소나에어리어</p>	<p>2024년 9월 24일 【학교방문·교류】 가고시마 정보고등학교</p>
<p>2024년 9월 25일 【강의】 ‘도방잡화’</p>	<p>2024년 9월 25일 【강의】 가고시마현청 ‘가고시마현과 한국의 관계, 가고시마현의 매력 등’</p>
<p>2024년 9월 26일 【시찰】 가고시마시립과학관</p>	<p>2024년 9월 27일 【교류】 홈스테이해산식</p>

### 3. 참가자의 감상(발체)

#### ◆ 한국 고등학생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일본’이라는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 일본 분들과 함께 생활해 봄으로써, 일본 사람들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상대방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시는 모습에 일본인의 따뜻함을 느꼈다.

#### ◆ 한국 고등학생

일본에 대해서는 책이나 교과서에서밖에 접한 적이 없었는데 홈스테이와 학교 방문, 각종 시찰을 통해 일본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이번 방일이 일본과 일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 방일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해 나가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고 싶다.

#### ◆ 한국 고등학생

일본에 오기 전에는 한일 양국 국민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고, 일본인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친절하고 예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4. 일본측 감상(발체)

#### ◆ 강의 강사

강의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자연적·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로 매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와 똑같다고 착각할 정도로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차이점을 즐기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상대측 사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 가고시마시 홈스테이 가정

1박 2일이라는 짧은 체재였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헤어지게 되어서, 조금 더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우리에게서 아무런 지 않은 일상 풍경에도 감동해 주어 학생들의 순수함에 놀랐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통했다고 생각한다. 부디 또 방문해 주길 바란다.

#### ◆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관계자

본교 학생과 한국 학생이 처음 만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지 걱정했는데, 만난 순간부터 서로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놀랐다. 본 교류의 목적인 일한의 젊은이들이 상호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양국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관계가 강화될 것을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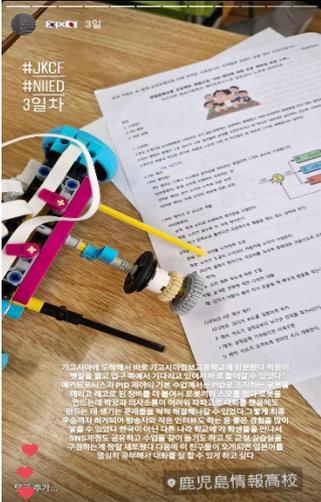
◆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관계자(학생)**

이번 교류에서 인상에 남은 것은 한국 학생들의 성품이다. 연일 뉴스에서 보는 다양한 문제는 좀처럼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자주 부상한다. 그 때문에 한국사람들은 모두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교류에서 한국 학생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한 이미지가 불식되어 갔다. 일한의 학생이 웃는 얼굴로 교류하고 있어,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했다.

◆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관계자(학생)**

실제로 한국 고등학생들과 체험수업을 통해 느낀 점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좋아하는 것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이 통해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짝공과 함께 카메라 실습을 실시했을 때 예쁜 사진을 함께 찍었더니 말은 통하지 않았음에도 서로 같이 웃을 수 있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췌), 보도기사 등**

	
<p>2024년 9월 24일(Instagram)          가고시마에 도착해서 바로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에 방문했다. 메카트로닉스과에서 PID 제어를 배우는 수업에서는 짝공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번역기를 사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과 SNS도 교환하고 함께 수업을 체험하고 교내를 견학할 수 있었던 것이 신선했다. 다음에 이 친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해서 대화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싶다.</p>	<p>2024년 9월 26일(Instagram)          가고시마시립과학관으로 이동해서,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전시를 보며 일본이 과학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재난이 확실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보니, 지진·태풍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많이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p>

先端技術学ぶ韓国高校生 鹿児島情報高校の生徒と交流

2024年9月24日 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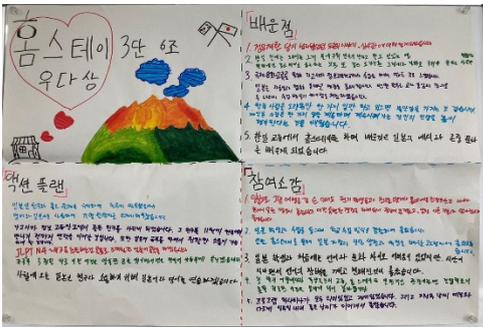
2024년 9월 24일(가고시마 요미우리 TV)  
 ‘첨단기술 배우는 한국 고등학생 가고시마정보고교 학생과 교류’ 한국에서 첨단기술을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일한 양국에 대해 이해를 깊이 하고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고시마현 정보고등학교를 방문. 수업체험에서는 일한 학생이 짝을 지어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PC로 편집한 모습 등이 소개되었다.

ロボットやシステム開発を学ぶ韓国の高校生が鹿児島市の高校で体験授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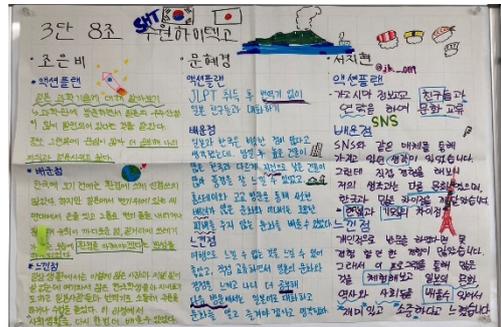
2024년 9월 24일(미나미일본방송)  
 ‘로봇과 시스템개발을 배우는 한국 고등학생이 가고시마시의 고등학교에서 체험수업’ 로봇과 시스템 개발 등을 배우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정보시스템과와 자동차공학과 등 4개 학과에서 체험수업을 실시한 모습 등을 소개.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와 액션 플랜 발표(개요 또는 발제를 기재함)



**【성과 발표】**

- 일본에 오기 전에는, 지진은 가끔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소나에어리어의 시찰을 통해 일본에서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쿠라지마의 화산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일본의 건물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배웠다.
- 일본에 오기 전에는 환경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일본의 화장실에는 변기 위의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그 물로 변기물을 내리거나 분리수거 규칙이 까다로운 점, 길거리에 쓰레기가



**【성과 발표】**

- 일본과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높은 건물이 많은 한국과 다르게 지진발생을 고려하여 지어진 건물이 많아, 그 덕분에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흙스테이와 학교 방문을 통해 세심한 배려가 많은 문화와 어디서든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 방일전에 미디어나 SNS와 같은 각종 매체를 통해 본 일본과 실제로 피부로 느낀 일본은 달랐고, 한국과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점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p>없는 모습에 환경을 아껴야겠다는 반성을 했다.</p> <p><b>【액션 플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관을 방문하고 일본의 우주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의 과학기술에 대해 조사하기</li> <li>· 이번 방일단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YouTube에 업로드하기</li> <li>·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과 SNS 등을 통해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가기</li> <li>· 일본어를 공부하여 일본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li> </ul>	<p><b>【액션 플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와 홈스테이에서 만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교류를 지속하기</li> <li>· 일본유학을 위해 일본어 공부하기</li> <li>· 가족과 친구들에게 일본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실을 전달하기</li> <li>· 일본어를 배워 JLPT 시험에 도전하기</li> <li>· 하루에 일본어회화표현을 3개씩 외우기</li> <li>· 일본문화에 대해 배우기</li> </ul>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